
2020년 제15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4. 3. ~ 4. 9.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4. 3.	시청률	0.102

【총 평】

팬데믹현상으로 악화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여러분의 북마크> 제63회는 '북한의 국가존망이 걸린 코로나19 차단전'을 방송했다. <북마크 TV>에서는 '코로나19 예방법으로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위생 상식'을 다뤄 관심을 모았다. 북한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모처럼 선보여 눈길을 끌었고 <여러분의 북마크>에서는 북한 상황을 집중진단하고 코로나19 해외보도에 대한 배경, 경제 살리기를 이슈화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 과제와 전망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이슈에 대해 미국, 중국, 유럽에 대한 북한의 보도 행태가 다른 이유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를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자본주의 체제인 미국과 유럽국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또, 미국과 북한이 코로나19 지원과 경제살리기를 고리로 협상에 물꼬를 틀 것인가를 진단했다.

【구성 및 내용】

우리나라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 내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단박톡 코너에서는 북한 내에서 바라보는 전 세계의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북미관계, 북중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북마크TV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이 강조하는 코로나19 예방법 영상을 소개했으며 특히 치위생 상식과 약초 정보를 다뤘다.

- <단박톡>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속 변화하는 북한의 상황과 코로나19 대응책
우리나라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 내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에서는 미국과 중국, 유럽의 코로나19 사태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방역체계가 낫다는 점을 홍보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중국사례에서는 북중관계를 고려하여 감염자 숫자 등을 밝히지 않는 등 자제하여 보도했다. 한편 코로나 19로 인한 북미관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방역 협조의향을 밝힌 친서를 보냈으며 이에 북한은 정상 간 친분은 과시하면서도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 <북마크TV> 코로나19 예방법으로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위생 상식은?
북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구강위생을 강조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모습에서 북한의 위기감과 안간힘이 느껴졌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향균력 있는 구강청결제나 치약, 칫솔살균기도 인기가 있으나 일반 북한 주민들은 이런 제품을 구하기는 어렵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4. 4.	시청률	0.000

【총 평】

<밥보다 법> 제5회는 코로나19를 이용한 ‘가짜뉴스 진실과 거짓’을 방송하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정보 유포자 대상이 되어버린 경우, 허위정보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만드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방법과 가짜뉴스 관련 처벌과 가짜뉴스 피해자의 대처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가짜뉴스가 만연한 실태를 깊이감 있게 조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무게감 있게 살펴 정보전달 측면에서 매우 적절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은 요즘 들어 모든 매체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아이템으로 변호사가 직접 가짜뉴스에 대한 역사와 유형,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니 조금 더 신뢰성이 높았고,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이를 옮긴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경각심을 가지게 했다.

【구성 및 내용】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까지 포함하면 형량이 2배, 문서로 유포하면 추가로 형량이 또 2배로 증가하는 등 가짜뉴스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되는 법적근거에 대한 구체인 제시로 신뢰감을 주었다. 특히,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출처가 어디인지를 살펴볼 필요성과 특별한 콘텐츠 없이 감정적인 것만을 자극할 경우 가짜뉴스를 의심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에 공감형성을 하였다.

‘밥법 드라마’는 “코로나19를 이용한 가짜뉴스 피해” 사례를 다루며, “성신네 분식”을 배경으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례를 콩트로 재연해 소개했는데,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공감대를 얻었다. 불특정 다수에 의해 번지는 가짜뉴스 핵심 이슈를 함축적이면서 정확히 짚어낸 콩트 구성이었다.

‘법률 다락방’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한 가짜뉴스와 처벌”과 “n번방 사건 가짜뉴스와 처벌”을 다뤘다. 고의성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적용 문제와 고의성 없는 공익적 부분인 경우 처벌 불가 문제로 나눠 설명해 준 점이 인상 깊은 내용이었다. 가짜뉴스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 공유해서 퍼뜨린 사람 처벌 문제와 관련해 해악의 유무에 따라 모두 처벌, 문제시 삭제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설명했다.

특히, 고의성 허위사실 유포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해 영향력이 있었다. 또, 인터넷 상에 널리 퍼져있는 마스크 재사용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위험성을 피력하고 무분별한 가짜뉴스 배포했을 때 개인과 유명 의료인,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렸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매우 유용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4. 4.	시청률	0.047

【총 평】

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제6회는 '시간이 머무는 곳, 변산반도'로 그곳의 전통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낭만의 설국 울릉도'를 시작으로 통영, 양양, 섬진강의 봄을 그려 봄의 색깔이 뚜렷했다. 코로나19로 침울한 시청자들에게 청량한 봄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감동과 힐링을 선사하는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3면이 바다인 격포리 채석강의 파도소리, 오래된 시간이 만들어낸 변산반도의 절경, 그 속에서 숨쉬고 삶의 터전을 이어온 어촌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기록들이 다큐형식으로 펼쳐졌다.

또, 죽염 만드는 과정과 전통주 팔선주 생산과정의 상세한 소개로 문화재 보존과 전승의 가치를 높인 부분도 탁월했고, 사라져가는 죽염과 팔선주의 명맥을 살려내는 주민들의 사명감과 장인정신이 감동적으로 살아났다. 곳곳하게 지켜가는 장인정신과 휴머니티가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전북 부안의 변산반도를 찾아 자연과 그 곳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들어보았다. 세월이 빚어낸 변산반도의 절경과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살아난 죽염, 팔선주에는 그간의 세월과 시간이 머물러있었다. 변산은 '변산반도(격포항/격포 앞바다)와 내변산(대나무)' 즉 바다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지형이라서, 더 많은 볼거리와 여행 콘텐츠가 있었고 그만큼 더 만족도가 컸다. 채석강은 시시각각 다른 절경을 보여주는 전북 부안 변산반도 8경 중 하나이다. 물이 빠진 해안을 걷다보면 바위 위의 무수한 따개비들이 아무소리도 안낼 것 같은데도 잘 들어보면 방울이 터지는 듯 한 숨소리를 내어준다. 변산바다가 파도로 만들어낸 절경 뒤편에 비밀스러운 동굴이 있다. 동굴 속은 물론 동굴의 입구에서도 파도의 소리와 새들의 소리가 들린다.

대나무가 흔했던 변산에는 죽염공장이 있다. 대나무는 독소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요즘 약재로도 많이 쓰인다. 죽염은 대나무통에 소금을 가득 채워 불가마에 옮겨 9번을 구워내는데 이런 작업이 마무리 되면 자줏빛 죽염이 완성되며 이를 자죽염이라고 부른다. 부안에서 나온 구룡목, 우슬 등 8가지 약초재료를 가마솥에 삶아내고 누룩을 넣어 발효시켜 팔선주를 만드는 과정이 다뤄졌다.

전북 내변산에 전해져오는 술인 변산 팔선주를 담그기 위해 약초를 손질한다. 팔선주에는 구룡목을 비롯해 8가지 약재가 들어간다. 팔선주는 변산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었다.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예전 방식 그대로 팔선주를 만든다. 누룩과 약재 끓였던 물을 비벼 발효시키면 팔선주가 나온다.

격포해변 동굴, 어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당, 어선에서 맛보는 싱싱한 주꾸미회, 죽염과 팔선주를 재현하며 부안의 전통을 잇는 주민들의 일상이 흡인력 있게 그려졌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4. 5.	시청률	0.007

【총 평】

<PD 리포트 이슈 본> 제292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발생한 생산·소비·수출이 막힌 2020년 봄을 그려낸 “비상 경제 대책 실물 경제 위기를 막아라”을 방송하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을 분야별로 깊이감 있게 조명하고 이를 타계할 정부의 노력과 대책마련을 자세히 소개해 시의성 있었다. 특히, 코로나 19가 빚어낸 실물경제 문제를 면면히 잘 살폈고, 국민과 전 세계인의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상태로 만듦은 물론 실물 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충격을 가져왔음을 잘 표현하였다. 또 어려운 경제 아이টে를 현장에서 취재하고 정부 지원 노력을 언급한 점이 돋보였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극복하고,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잘 드러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소비, 수출 주식하락 등 경제 지수 하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비상경제회의, 고용유지 지원금, 추경, 상품권 지급, 금융시장 안정 대책 등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 기대감을 비쳤다.

코로나19로 우리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을 분야별로 깊이감 있게 조명하고 이를 타계할 정부의 노력과 대책마련을 자세히 소개했다. 실물경제 분야에서 시작된 위기감이 증권 외환 채권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자세히 조명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전체적인 상황을 잘 전달했다.

전반부에서는 현재 소비와 수출, 금융권 등 추락하는 경제 지수를 위주로 다루었다면 중반부터는 비상경제회의, 고용유지 지원금, 추경 등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시책을 소개했다.

부산 염색공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공장들의 생산량 급감, 소비 위축, 수출 감소 등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실물경제 위축으로 영세 상인과 기업이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상태임을 무게감 있게 전달했다.

특히, 비상경제회의와 고용유지지원금과 추경 등을 함께 다루면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차례대로 소개되었다. 실제로 지원금을 신청한 한 여행사를 찾아 지원금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그 신청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주었다. 또, 아동 수당을 지급 받은 한 주부가 직접 지급받은 상품권에 대해 현금이 아니라서 약간 실망했지만 쓸모가 아주 많다는 평가로 지원금을 받게 될 다른 아이 엄마들에게 기대감을 주었다. 또, 채권시장 안정펀드, 통화스와프, 증시안정기금 등 금융시장 안정 대책 등에 대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공동 숙제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시사성 있는 발언이었으며, 현재 정부의 행보에 불만이 많은 시청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조금이나마 넓힐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된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4. 5.	시청률	0.029

【총 평】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제27회 '외달도에서 일상을 여행처럼'은 전남 목포의 외달도에서 귀촌한지 7년째가 되가는 부부의 일상을 그렸다. 외롭게 떨어진 달동네라는 뜻을 가진 외달도의 한옥에 반해 결혼을 하자마자 정착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다. 귀촌 그 자체를 일상이자 여행으로 여기며 많은 욕심 없이 매순간을 즐기는 가족의 모습이 정겨웠다. 귀촌을 한 연유부터 그들의 생계 등이 과함없이 적절하게 담겼다. 어린 아들 이룸과 부부가 섬을 산책하고 고기도 잡고 느리고 힐링하는 삶이 도시인들에게는 부러움 그 자체였다.

7년째 외달도에서 일상을 여행처럼 만족해하며 사는 부부의 삶을 통해 무엇이 행복이고 마음의 평온함인지, 감사하는 소확행이 무엇인지를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외달도의 전경, 낙조, 바다풍경은 시청자들에게 잠시나마 일상의 잡념을 떠나 성찰할 수 있는 감동을 선사했다.

【구성 및 내용】

'외달도에서 일상을 여행처럼' 7년째 생활하는 부부의 섬생활 전원일기로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외딴섬에서 오순도순 살아보고자 하는 꿈을 현실로 옮긴 부부의 이야기였다.

귀촌 7년차 부부가 사는 곳은 목포시가지에서 서쪽으로 6킬로미터 떨어진 외달도, 20구가 사는 단출한 섬이다. 거창하게 섬에 정착해 고소득을 올리는 성공사례가 아니라 외딴섬에서 자족하며 소박한 일상을 평화롭게 이어가는 가족이야기가 큰 울림을 주었다.

한눈에 반해 외달도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된 한옥, 고동과 소라, 아이들의 놀이터로서 바다가 주는 선물, 민박운영과 손님맞이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결혼하자마자 섬으로 들어왔다는 부인은 "바다가 주는 넉넉함, 편안함이 좋고 마음 놓고 자연 속에서 아들을 키울 수 있어 좋다"며 섬이 개발되는 것보다 자연이 보존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털어놓았다.

부부는 민박을 운영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고, 한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꿈꾸던 생활이 이루어진 것 같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이가 생기니 더 벌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기도 한다. 마을 통장도 도맡아 하는 40대 남편은 민박객이 떠나면 다시 바다는 일가족의 것이라며 여행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며 일상의 기쁨을 넉넉히 밝힌다. 아들 이룸은 외달도의 미래이자 보물이다. 부부와 어린 아들이 펼칠 행복한 미래가 실현되길 시청자들은 소망했을 것이다.

특히, 일가족이 별섬에서 고동, 소라, 해삼을 잡아 식사 준비하는 모습, 미끼 넣은 통발을 바다에 넣었으나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웃음을 띠는 가족의 모습, 아들 이룸이 모래장난을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긍정의 일상으로 다가왔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4. 7.	시청률	0.040

【총 평】

재난상황인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다시 2주 동안 연장되고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판로가 막힌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리포트> 코로나19 극복 관련 아이টে을 집중보도하고 예방수칙 공지로 캠페인 효과를 높인 점이 돋보였다.

특히 '농산물도 드라이브스루'는 급식중단으로 판로가 막힌 친환경농산물 팔아주기, 면역력 높이기 관심 집중 리포트는 우리 농산물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안을 소개함으로써 정책알림이 효과가 기대된다. 동네 서점에서 간편하게 책을 빌리는 내용을 소개한 리포트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손쉽게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 분위기를 유도하는 내용이어서 긍정적이다. '북한산, 봄이 오는 소리'는 영상과 음향이 조화를 이룬 눈에 띄는 수작이었다. 물소리, 새소리 등 소리로 들어보는 북한산의 봄이 오는 소리가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을 말끔히 씻어주는 느낌이었다.

【구성 및 내용】

■ 농민 돕기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판매 호응

용인시청 광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마켓이 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급이 중단된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드라이브스루' 판매방식을 통해 판매한다. 구매자는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트렁크에 구매한 농산물까지 모두 직원이 넣어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도 돕고 소비자들은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상생하는 훈훈한 소식을 담아 전했다.

■ 코로나 장기화...'면역력 높이기' 관심 집중

코로나19 감염을 예방을 위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식품과 그 효능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 매우 유용했다. 특히, 고령층의 코로나 대비 면역력 증강을 위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를 소개하였다.

■ 도서 대출 서비스 확대...책 읽는 도시 '세종'

세종시는 동네서점에서도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무인 도서 대출기와 도서확충 정책 등 독서 문화의 확산 아이템 선정이 돋보였다. 특히, 인근 서점에서 도서를 대여하는 '바로 대출'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서비스로 이목을 끌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 확산되면 좋을 유용한 정보였다.

■ 도심 속 공원...북한산, 봄이 오는 소리

북한산 국립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봄은 맞은 북한산의 아름다운 절경과 새순이 돋아난 봄의 정취,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소리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냈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4. 7.	시청률	0.095

【총 평】

<특특 사이다 경제> 제235회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국내외 실물 경제 위기이자 비상 경제 대책을 다룬 “세계 성장률 침체 진입, 항방과 위기 대응은?”을 방송하였다. 4월 7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120만 명, 누적 사망자는 6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세계 경기 문제와 위기 동향을 살펴본 점은 매우 시의 적절한 아이템이었다.

최근 국내의 확진자수가 둔화됨에 따라 프로그램 방향도 코로나19 종식이후의 상황을 예상해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나면 항상 희망적인 느낌이 들게 된다. 또, 일본의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전문가의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흥미롭게 느껴진다. 전세계 추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경제 상황과 연관시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구성 및 내용】

오늘 다룬 주제는 “세계 성장률 침체 진입, 항방과 위기 대응은?”이다. 주요 기관의 세계 경제 역성장 전망 수치를 다루어서 침체된 경제 상황을 이해하게 만들었고, 언택트 소비 현상과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입장 등을 다루어 많은 공감을 샀다.

또, 우리나라 코로나19의 추이를 다루면서, 그 동안 실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입증하고 경각심을 불어 넣는데 집중했다. 이와 함께 해외 유입자들의 이탈을 다루었고,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강조해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특히, 세계의 코로나19 사태가 국내보다 한층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어 다루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적절했던 것 같고 단순히 외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흐름을 잘 끌고 와서 설득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고 있는 품목을 살펴보았는데, 그동안은 의약품에 대해 다루었다면 오늘은 농식품으로 확대해서 다룬 점이 흥미로웠다.

■ 세계의 코로나19 현황과 세계 경제 전망

각 나라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이를 분석하고 그 중 눈길을 끌고 있는 몇 개 나라를 위주로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상황을 예상해 보았고 이어 주요 기관의 세계 경제 역성장 전망 데이터를 다루면서 향후 경제 상황을 예상했다.

■ 국내 코로나19 현황과 수출 증가 물품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분석하고 최근 확진자 증가 폭의 둔화 추이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효과를 입증했으며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0. 4. 9.	시청률	0.025

【총 평】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KTV의 공적책무 수행이 뉴스에서도 돋보이고 있다. 코로나19 관련뉴스를 집중 보도한 <특집 KTV대한뉴스>에서는 코로나19 관련뉴스의 집중화와 입체적 편집으로 이슈를 부각시켜 메시지 전달력을 높인 점이 탁월했다.

또, 뉴스와 함께 S&NEWS, 뉴스링크3, 유용화의 오늘의 눈, 오늘의 브리핑 코너에서도 코로나19 관련내용을 발빠르고 깊이있게 다뤄 신속성과 심층성도 돋보였다.

백신 개발에 2천여 억원을 투자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손실병원에 보상금 지원, 가족돌봄비용 확대 지원 등 각종 지원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정책알림이 역할과 함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뉴스 관심도가 높은 온라인 개학 첫날, 내일부터 사전투표, 보행자 우선 교통대책 발표 등을 다룬 아이템도 흡인력을 제고했다.

【구성 및 내용】

■ 치료제 개발 현장점검...“백신 개발 2천100억 투자”

문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를 방문 및 격려하는 한편 기업, 연구소, 전문가 등과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빠른 개발을 당부했다.

■ 온라인 개학 첫날...“미래로 나가는 새로운 도전”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 ‘온라인 개학’이 진행된 교육계 현장상황을 전하고 처음 실시된 중·고등학교 3학년의 온라인 수업 모습을 자세히 조명했다.

■ 신규확진 39명...한 번에 여러명 검사 ‘취합검사법’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진단하고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5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의 위험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식과 함께 코로나19 무증상자에 대한 빠른 검사를 위해 취합검사법 도입 소식을 전했다.

■ 손실 병원에 보상금 지급...“의료인에 성원 당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을 위한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대상이 되는 병원의 요건과 기준과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사업도 추진된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 가족돌봄비용 1인 최대 50만 원...두 배 확대

정부가 정상적인 등원·등교 전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 원에서 최대 10일 5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내년까지 20개로 확대”

정부의 ‘K-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소식과 유니콘 기업의 기본개념을 자세히 설명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4. 9.	시청률	0.103

【총 평】

<현장 출동 안전이 먼저다> 제28회는 “코로나19 시리즈 기획 -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안전, 최일선에 선 군인”을 방송해 국방부의 코로나19 퇴치 위한 모습을 리얼하게 담았다. 특히, 집단생활의 대표적인 군부대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철저히 차단되고 있는 것은 군내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과 장병들의 강인한 정신력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적인 환경일 수 있었음에도 청정부대로서 지켜내고 있는 군부대의 방역 생활을 고스란히 전해주었다.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안전, 최일선에 선 군인”은 코로나19를 비군사적인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국방부의 대처 노력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들의 방역과 검역 그리고 수송 노력 등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구성 및 내용】

인천국제공항에 파견되어 발열 체크와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는 검역지원단의 활동을 소개했고 육군 ○○사단의 방역 실태를 상세히 다루고 코로나19로 변화된 군 장병들의 생활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지역민들을 위해 주요 시설을 방역하고 헌혈에 참여하는 등 지역민들을 위한 군 장병들의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소개했다. 이 외에 지역 농산품 구매, 화훼농가 돕기, 기부 캠페인 등의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보여주었다.

육군 ○○사단의 방역활동 모습은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군부대 생활 문화를 바꿀 것이며 하루 3회 소독 및 훈련축소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손씻기를 30초 이상 하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0초 초시계까지 벽에 부착해 놓고 실시하는 모습에서 군은 한치의 긴장도 늦추지 않고 군부대의 단체 감염을 막기 위해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지금 빠져 나갈 수 없는 상황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그동안 평범한 일상이 축소되고 바뀌고 있다. 특히, 군 내부 행사도 영상으로 대체하며, 코로나19로 달라지고 있는 생활상을 보여주었다. 절제된 군에서도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절제된 모습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는 국민과 다를바 없다.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연대감 형성을 위해서는 예외가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군 생활 문화는 식사도 한줄씩 앞사람과 거리를 띄우고 훈련, 외출, 외박이 차단되고 체력 단련 정도의 개인별 훈련이 이어지는 모습은 군이 매우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군부대내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전 부대에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